

일본 지방자치제의 국제화실태에 관한 기초연구

고 성 준*

목 차

- I. 서 론
- II. 국제화의 개념 및 특징
 - 1. 국제화의 개념
 - 2. 국제화시대의 특징
- III. 일본 지방자치제의 국제화 실태
 - 1. 東京(도보꾸) 지방의 국제화실태
 - 2. 東海(도카이) 지방의 국제화실태
 - 3. 關西(간사이) 지방의 국제화실태
 - 4. 中國(츠크꾸) 지방의 국제화실태
 - 5. 四國(시코꾸) 지방의 국제화실태
 - 6. 九州(큐슈) 지방의 국제화실태
 - 7. 北海島(홋카이도) 지방의 국제화실태
- IV. 국제화의 의의와 한계
- V. 결 론

I. 서 론

20세기 말에 이르러 전세계적으로 세계화의 물결이 휩쓸고 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체결로 전세계적인 자유무역의 실시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었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듯이 보인다. 게다가 70여년에 걸친 공산주의의 실험이 그 종주국인 소련에서 실패하여, 지구상의 몇몇지역을 제외한 곳에서는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보편성을 획득해가고 있기도 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18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 풍미해 온 '국민국가' (nation state)의 영역의

*제주대학교 교수

축소라고 할 수 있다.¹ 유럽에서 절대왕정의 대두와 함께 생겨난 국민국가는 대외적으로는 주권이라는 무기로 자주성을 누릴 수 있었고,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권위를 향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세계경제의 급속한 팽창과 이를 수반하는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의 사업영역 확장은 개별 국민국가의 주권영역을 매우 축소시키고 있다.²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각국은 생존경쟁 및 자국 영향력 확대의 차원에서 자국의 세계적 지위를 제고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은 보통 '세계화'(globalization),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라는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가는 일본의 실태, 특히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제)를 중심으로 한 민간단체의 노력 및 그 현황을 살피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노력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II. 국제화의 개념 및 특징

1. 국제화의 개념

그러면 '국제화'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국제화라는 개념은 '세계주의'(globalism) 또는 세계화(globlization)라는 용어로 바꾸어 이해하는 편이 보다 용이할 것이다.³ 국제화라는 용어는 국가라는 단위는 고정시키고 단순한 중대의 교류라는 측면에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라는 것은 각국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을 중심으로 인지하고 전쟁을 포함한 여러가지 교섭을 하고 일정한 정도의 문화를 공유해가는 현상을 의미한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구촌'(globalvillage)이라는 1차집단적 의미로 명명하는 것은 이러한 문화공유라는 의미가 확산된 결과라고 하겠다.

2. 국제화시대의 특징

국제화시대의 특징은 다음의 두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개별 국가간의 국경은 전보다 더 개방된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통합적인 중앙정부의

1) 이용희, 「미래의 세계정치」, (서울: 민음사, 1994), p. 17.

2) 하영선, "신세계 질서와 지구적 민족주의", 하영선 편, 「탈근대지구정치학」(서울: 나남), p. 18.

3) 倉澤進, "國際化と自治體", 「都市問題研究」, 1994年 7月號, pp. 3~6.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그 반대로 각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국가간의 관계에서는 외교, 군사, 무역 등 관계의 측면이 다차원적이어서 갈등과 화해의 양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계의 중점을 군사면에 둘 것인지 아니면 외교나 무역에 둘 것인지의 기준이 수시로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그러나 도시간의 관계에서는 자매도시간의 교류와 같은 일차원적이고 또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문제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교류가 상황적인 제약이 다소 약해 교류가 더욱 용이할 수 있다. 최근들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나 일본의 나가노와 같이 세계적 행사인 올림픽을 국가가 아닌 일개 지방자치체가 주관하여 유치하고,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수 있다.⁴⁾

따라서 둘째로 도시간의 경쟁이 중요하게 된다. 이전에는 국가간의 경쟁이 중요한 문제였으나, 국제화의 진전은 분업체제에서 도시간의 경쟁을 부추기게 된다. 예로서 패션산업계에서는 이태리의 밀라노와 프랑스의 파리가 경쟁을 하고, 외교도시로서는 제네바와 브뤼셀이 경쟁하는 상황이 뚜렷해진다. 이외에도 유통, 및 물류 중심지를 놓고 함부르크와 안트워프가 경쟁하는 등 도시간의 경쟁은 치열해진다.

결국 국제화시대의 특징을 요약한다면 지역 및 도시의 중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국가 영역의 상대적 축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일본 지방자치체의 국제화 실태⁵⁾

1. 東北(도보쿠)지방의 국제화실태⁶⁾

일본의 북동쪽으로 북해도와 접하는 지역을 일컫는 명칭이며 도시로는 센다이(仙臺)가 중심도시이며, 지역적으로는 미야기(官城)현, 니가타(新瀉)현, 후쿠시마(福島)현, 아오모리(靑森)현 등으로 이루어진 산악지대이다.

국제화지표의 하나인 외국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출국자의 수를 보면 일본 전체 출국자 수에서 이 동북지방 출국자의 비율은 4.9%로 비교적 낮은 수치이다. 또한 산업면에 있어서도 전국 수출량의 0.2%정도만을 담당하고 있고, 유치기업도 비교적 소규모 기업들이다. 따라서 이 동북지방의 국제화 수준은 아직도 전국 평균수준에

4) Ibid. pp.7~9.

5) 이 부분은 주로 다음의 논문들에 의존했음. 「NIRA政策研究」, 1994년 7권 6호, 「地域の國際的活動研究」의 第四章 アジア太平洋交流等各地の交流. pp. 22~45.

6) 渡邊良平, “東北地域における國際的活動”, 「NIRA政策研究」, Ibid. pp. 22~24

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중에도 중심도시인 센다이시는 국제화를 추진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다. 그것 중의 하나가 3000m에 이르는 센다이 공항 확장사업과 '동북텔레포트구상'이라는 국제 정보화도시의 추진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북인텔리전트 코스모스구상'이라는 종합정보도시구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성공한다면 산업기술의 국제적 거점이 될 것이고 이들은 기대하고 있다.

자매도시와의 교류를 보더라도 현재 이 지역의 83개 시가 각 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도시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예로서 키타가타(喜多方)市는 크리스스트교회의 교환방문을 계기로 소화63년에 이르손빌시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田子 마을은 마늘이라는 특산물을 이용하여 기르로이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도 했다.

이 외에도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지역민들은 산림 및 농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 東海지방의 국제화실태⁷⁾

'東海'지역이란 일본 남쪽의 나고야(名古屋)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일컫는 말로서 흔히 말하는 간토(關東)지역과도 많이 일치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국제화에 대하여 살피기 위해서는 나고야를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국제화실태와 기타 농촌지역의 국제화실태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먼저 나고야 등 도시지역의 국제화실태 및 그 노력을 살펴보겠다. 이 지역은 도쿄, 오사카 다음가는 산업지대이자 도시인 만큼 다방면에서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국제도시를 목표로 하는 나고야는 올림픽유치에 적극 나선 적도 있고, 외국의 영사관을 유치하려는 등 국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연합 지역개발센타가 바로 이곳 나고야에 설치되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한 행정기획 담당자를 육성하고 있고 또 국제연수에도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소화59년에 설립된 나고야 국제센터로 인해 시민과 기업이 주도하는 민간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선해야 될 점으로 들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문제이다. 이 지역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다수의 외국인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의료, 보험 등의 문제를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정비해야 하는 부담도 떠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엔고현상으로 인해 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내산업이 공동화되는 현상도

7) 高原 稔, "東海地域における國際的活動", Ibid. pp.25~27.

예견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우주산업, 파인세라믹스, 영상산업, 마이크로머신 등의 업종육성을 꾀하고 있지만 아직도 정착은 안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을 개발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농촌지역의 국제화 실태를 살펴보겠다.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도자기 산업이다. 타지미(多治見)현과 미노(美濃)시 같은 山地에서는 86년부터 '국제도자기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외국의 도예가들과 폭넓은 교류를 하고 있다. 또한 나고야시의 有松지구에서는 전통공예인 '홀치기염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와 기타 여러 이벤트행사를 열어 세계 각지와 교류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과 접하기 힘든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이나 행정직원의 해외 파견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들 지역에 맞는 산업의 유치에도 노력하고 있다. 예로 시로가와(白川)에서는 오르간 제작소의 입주를 계기로 학교에 오르간을 들여놓는 한편 음악제를 개최를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인 원조도 적극 필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동해지역에 중부 신국제공항을 4000m급으로 신설중이며, 독자적인 정보망 구축 및 아시아계기업의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3. 關西(간사이)지방의 국제화실태⁸⁾

이 지역은 오오사카(大阪)를 중심으로 한 일본 최대의 산업지대이다. 관서지역의 국제화실태를 살피기 위해 거대기반시설측면(hardware)과 보조기반 및 실제 교류면(software)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우선 하드웨어면을 보면 산업구조개혁, 국제화도시 건설, 정보화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관서학술문화연구도시의 건설, 관서국제공항건설, 명석해륙대교건설 등이 있다. 먼저 관서국제공항은 연간 항공기 이륙대수가 16만회에 달할 정도로 물류규모에서 초매머드급으로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관서문화학술연구도시구상'을 위해 同志社대학, 국제고등연구소, 지구환경산업기술연구기구, 국제전기통신 기초기술연구소 등이 이미 핵심 시설로 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 국제교류 및 무역시설로는 아시아태평양 무역센터(ATC), 오사카 와그로 무역센터, 고베항공여객터미널, 오사카 국제회의장 등이 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면을 살펴보겠다. 그동안 외국 출입국자 수는 동경에 비해 이 지역은 아주 적었다. 그러나 관서국제공항이 1994년 9월에 완공되면서 이 공항을 통한 출입국자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면은 이같은

8) 藤田昌弘, "關西地域における國際的活動—ハード面" Ibid. pp.28~32.

점을 감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외국인 거주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생활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정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함으로써 일본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한 수준이고 아직도 유학생 개개인의 아르바이트에 학비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은 관습의 차이, 비용 및 언어장애문제 때문에 아직도 만족할 만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아직도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외국인에 대한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이다. 이것은 오사카 일용 노동자나 종교단체 등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이 미비하고 따라서 그 확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역간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다.⁹⁾ 예로서 兵車현은 몽골과 교류를 10년전부터 해오고 있고, 徳島현 해외예술가의 활동거점을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통해 구미 여러나라와 교류를 해오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를 중심으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한국, 타이 등과도 기술교환추진, 환경토론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 中國(츄코꾸)지방의 국제화실태¹⁰⁾

東海(일본명으로는 일본해)와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심도시는 히로시마(廣島)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류를 보면 아시아지역과 관계하는 측면이 일본의 다른 지역보다 특히 두드러진다. 그리고 거류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유학생도 84~85%가 아시아계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류는 아시아권과의 교류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의 대다수가 아시아지역으로 진출한다는 면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지역이 츄코꾸라는 지역으로 불리지만 각 현간의 지리적 격리성으로 인해 공통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류도 각 현이 개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고, 공통되는 프로젝트도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츄코꾸(中國)라는 지역적 일체감을 가지도록 각 지역에 분담 역할을 지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즉 島取현은 '식물생육, 지구녹화기술개발 기능'을, 島根현은 일본전통문화를 살린 '일본문화연수, 교육기능'을, 히로시마현은

9) 清島英治, "大阪市の姉妹都市交流について", 『都市問題研究』, op. cit. pp. 93~106.

10) 津浦 實, "中國地域における國際的活動", 『NIRA政策研究』, op. cit. pp. 33~35.

‘국제인재육성기능’을 야마구찌현은 아시아의 관문이 시모노세끼(下關)항이 있는 관계로 ‘아시아지역과의 경제교류기능’이라는 식으로 역할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각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실시하고 있는 터여서 ‘자의적인 역할 분담’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만한 움직임이 있다. 히로시마는 아시안게임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즉 공항을 정리하고, 또 히로시마를 중심으로 도로망을 신설하는 등 지역간의 격리성을 해소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국제연합군축회의 개최, 세계평화연대도시회의 개최, 핵전방지 국제의사회의 개최 등 ‘세계로 열린 히로시마’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환일본해(한국명칭은 환동해권) 경제권이 활성화된다면 이 지역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고무되고 있다.

5. 四國(시코꾸)지방의 국제화실태¹¹⁾

시코꾸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고 기후는 온난하고 해양성 기후이다. 인구는 전국의 4%이고 국민총생산은 전국의 3%정도일 정도로, 산업은 주로 1차산업과 3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2차산업은 주로 소규모 기초소재형 산업과 생활관련형 산업이 주종을 이루는 반면 가공, 조립형 제조업 비율은 아직도 낮다.

이 지역은 각 현이 산맥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교류가 상당히 저조한 편이었다. 따라서 국제화 기반다지기가 중요한데 이러한 작업은 주로 교통로의 신설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본토와 연결하는 대교 3개(瀬戸대교, 명석해협대교, 來島대교)를 신설 중이고, 시코꾸 종단, 횡단 도로건설추진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국제교류면에서 보면 이 지역은 매우 빈약하여 국제회의도 평성3년에는 3건 정도이고, 자치체와 지방도시의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도 26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산악지역이라는 점과 이로 인한 지역적 고립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와중에도 FAZ구상을 세우고, 180억엔을 투자하여 무라야마(松山)지역을 교통, 정보, 관광을 망라하는 종합물류지역으로 육성하려 하고 있고, 사회간접자본(인프라)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항의 국제화를 피하여 항공교통을 이용한 지역간 격리성 해소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온난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수많은 사찰을 이용하여 관광객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시코꾸 제무국에 의해 ‘국제학술연구도시구상’, ‘바이오프론

11) 矢野博英, “四國地域における國際的活動”, Ibid. pp. 36~38.

티아 시코꾸구상', '휴먼로봇기지구상'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코꾸지역의 국제화는 지역적 고립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늦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자체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다른 지역과 상호의존하면서 교류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6. 九州(큐슈)지방의 국제화실태¹²⁾

큐슈섬을 중심으로 한 지역으로 기후가 온난하고 해양성 기후가 특색을 이루는 지역이다. 큐슈는 항상 아시아의 일원임을 의식하면서 지역개발 혹은 경제교류를 행해왔다. 큐슈의 국제화는 3단계로 이루어져 왔다. 제1단계는 70년부터 한국 및 대만으로 기업이 진출한 단계이고, 제2단계는 85년 엔고시대를 전후하여 다수의 기업이 아시아 각국으로 진출한 단계이다. 현재는 국제화 3단계를 맞이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¹³⁾

- ① 국제교류가 '학습' '연구' 측면에서 '실천'과 '비즈니스' 측면으로 점차 이동하고 있다.
- ② '지방의 발전' 및 '다른 문화의 이해'를 위한 각종 교류, 연구조직이 형성, 활성화되고 있다.
- ③ 아시아 각지로부터 교류의사 타진 및 방문자가 늘고 있고, 이들 지역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이러한 국제화의 진행과 아울러 지역화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들 자신들이 제기하는 우선적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산업구조에 있어서의 적절한 조화문제이다. 엔고현상으로 기업의 해외이전에 활발한데 이것이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지역경제의 공동화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일본 국내에도 지역적 생산기반을 남겨둬야 하는 문제를 해결한다.

둘째, 행정조직간의 교류를 통해서는 교류가 장기적이고 지속적이질 못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단체 및 주민들은 사조직간의 교류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

12) 坂口光一, “九州地域における國際的活動”, Ibid. pp. 39~41.

13) 외 博 實, “北九州市の國際交流都市づくり”, 『都市問題研究』, op. cit. pp. 69~79.

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통해 이들이 귀국 후에도 계속 유대를 맺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이들이 택하는 국제화 전략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동북아시아를 겨냥하여 환황해경제권과 환동해(환일본해) 경제권을 상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나가사키(長崎), 후쿠오카(福岡), 기따큐슈(北九州)가 환동해권교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고, 토야마(富山), 니가타(新潟)가 환동해권의 중심을 맡고자 하고 있으며, 현재 큐슈를 중심으로 이 두 경제권을 거점도시의 연계를 통하여 접합시키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둘째로 지방행정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 지역의 지방개발사에는 국경을 넘는 교류의 본보기가 되어 외국에까지 보급되고 있다.

셋째로 그동안 도시간의 일대일로 추진되던 교류를, 여러 도시와 동시에 교류를 추진하여 큐슈에는 다양한 도시가 있음을 알리고,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큐슈의 국제화전략은 아시아의 경제적 거점이 되고자 하는 문제에 초점이 두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 北海島(홋카이도) 지방의 국제화실태¹⁴⁾

일본의 북해도는 막부정권이 붕괴하고 천황제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사립이 거의 살지 않는 오지였다. 그러던 것이 1869년에 본격적으로 개척되고 주민을 이주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해도의 기후는 매우 한랭하여 거주에는 대단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같은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슬기를 보여주고 있다.

북해도의 국제화실태는 '북방권 구상'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그 요점은 기후의 특성상 눈이 많이 오고 한랭한 북해도의 자연환경을 감안하여, 기후 및 풍토가 유사한 북구의 나라들과 교류를 증대하고 그들로부터 환경을 이용하는 기술 및 문화를 받아들여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혹독한 자연조건속에서도 고도의 생활문화를 이룩한 북구 선진국의 사례는 일본에게는 중요한 본보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는 1972년에 삿포로에서 「북방권 강화회의」를 개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북해도는 기후가 매우 한랭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다. 그러나 북방권의 여러나라와 교류하면서 그들의 주거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

14) 佐藤 宜男, "札幌發. 北方都市市長會議", 「都市問題研究」, op. cit. pp. 56~68.

리하여 주택시설, 난방시설 등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환경을 이용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실례로 눈이 많이 온다는 환경을 이용한 레저 스포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국제적인 겨울 관광지로 육성해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이러한 노력은 동계 올림픽의 개최로 더욱 그 결실을 맺고 있다.

그 외에 외국의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북해도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로는 미국의 매사추셋주, 캐나다의 알버타주, 중국의 흑룡강성 등을 들 수 있는데, 북해도 내의 54개 도시가 외국의 72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 북해도는 이러한 결연을 통해 스포츠 교류, 한지농업기술 교류, 대학학술 교류 등을 시행하고 있다.

IV. 국제화의 의의와 한계

국제화의 진전은 다음과 같은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¹⁵⁾ 첫째, 지방자치체의 교류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자신들과 국제사회와의 연계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된다. 둘째로 타국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 협정체결의 주역은 행정을 담당하는 우두머리이지만 경제협력을 포함한 실제 교류는 민간인이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이 교류의 주역이 된다.¹⁶⁾ 셋째, 처음에는 외국인 편익에 주로 관심을 쏟다가(내향적 국제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의 참여로 관심의 영역이 넓어지게 된다.(외향적국제화) 넷째로 교류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일반적이므로 호혜평등의 인식이 일반적이므로 호혜평등의 인식이 자연스레 시민들 사이에 확산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화가 이렇게 좋은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닌다.¹⁷⁾

즉 첫째로 자매도시간의 교류는 빠르게 그 정도가 시들어 간다. 처음에는 우두머리들에 의해, 상호방문, 도시 특산품 전시회 등의 형식으로 정력적으로 교류가 추진되나 나중에는 교류대상을 찾기가 힘들어지면서 점차로 시들해지게 된다.

둘째, 국가간, 도시간의 교류가 드물 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교류단은 지역대표

15) 江橋 崇, "自治體と國際交流政策のあり方", Ibid. pp.17.

16) 호소가와 모리히도 외 김재화역, 「지방의 논리」(서울: 삼과 꿈), 1994, pp.213~228.

17) 江橋 崇, op. cit. p.18.

단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성적으로 임하지만, 교류가 확대되면 관광 및 여행이 교류의 주축을 이루게 되어 교류의 방향이 개인적인 문제로 전환되는 경향이 생긴다.

셋째로 호혜평등에 입각한 교류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장애가 되는 수가 있다. 주는 만큼 받는 인식하에 국가간의 문화적, 경제적 격차를 감안하지 않고 교류를 한다면 교류의 의미가 희석될 수도 있다. 실례로 일본은 아프리카의 某국과 거래하면서 경제원조의 대가로 석탄을 받는 일이 있는데 석탄은 일본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것이었다. 또한 기술연수생을 교환함에 있어서 상대국에서는 일본으로 파견되고자 하는 지원자가 많았으나 정작 동수의 파견자를 일본에서 구하기는 쉽지 않았었다. 무리하게 호혜평등주의를 주장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러한 교류관계에서는 외국 도시와의 경쟁 뿐 아니라 국내 도시간에서도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고, 이 점은 우리의 국제화전략을 위해서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V. 결 론

이상에서 일본 지방자치체의 국제화실태 및 그 의의와 한계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하여 일본은 그 경쟁력 및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걸맞게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특히 동북아의 경제적 위상이 전세계적으로 높아가는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일본의 노력은 중앙정부차원 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필사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세계화에 적용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자신의 자연환경과 경제적 입장 및 국민적 관심사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일본문화의 세계화, 국제화에도 노력이 집중되고 있음은 우리가 주목할 일이라 여겨진다. 특히 외국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와서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의 노동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문제 관련사례들이 최근들어 많이 보도되고 있다.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거부터 추진해 온 국제화노력은 세계화를 거듭 외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매우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